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확대

도, 450만 그루 나무 심는다

전북자치도, 원광대·한국생산성본부·참프레와 유학생 취업 생태계 조성 협약...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강화

2025년 조림사업 본격 추진 181억원 투입

기능별·지역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조림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일 원광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주)참프레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지역 내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지역 내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지원 △원광대학교의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기업-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원광대학교와 (주)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학생을 채용하고,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원광대·한국생산성본부-(주)참프레 유학생 취업 지원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원광대 박성태 총장,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주)참프레 김재운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개 기관 간 유학생이 취업과 연계하여 정주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된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실질적인 정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한 학업을 넘어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지역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기반 주문형 교육과정은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졸업과 동시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기업들에게도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원광대학교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여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전북에서 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 지역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넘어 전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북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25년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총 181억원을 투입해 1,905ha 면적에 450만3,5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경제림 조성, 생활권 내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 기능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요 조림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심어 안정적인 목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림 조성' (1,442ha) △도시와 생활권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큰나무 조림' (261ha)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조림' (147ha)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내화수림대 조성' (55ha)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및 관공지, 생활권 주변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큰나무를 심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산물 취약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산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조림도 확대된다. 섬 지역에는 해풍과 염해에 강한 자생 수종을 식재해 산림 복원을 추진하며, 지역별 대표 수종을 활용한 특화림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봄철 조림사업은 오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조림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사방사업에 336억원 투입

6월 우기 전까지 완료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에 조기에 착공해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사방사업 예산으로 국비 235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101억원을 더해 총 33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규모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추진되는 사방사업은 △사방댐 90개소 △계류보전 34km △산지사방 13ha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으로, 모두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 1,221개소의 기존 사방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사방시설의 기능이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전국 최초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도내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는 대상자의 정보를 데이터화 해 119종합상황실에 등록하면, 대상자가 119를 이용할 경우 질병 정보 등이 출동 대원에게 전달된다.

올해부터 이 서비스의 이용 연령은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됐으며, 법정 회귀질환, 소아암 등 특이질환만 제공받던 서비스를 응급응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이송 및 현장 조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가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또는 119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선도한다

다자녀 가구·육아 공무원 지원 확대... 공공부문 모범 정책 추진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에서 손자녀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 시술휴가(2~4일)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 동행휴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

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가 부여된다.

상반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위케이션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광장 가점을 부여(0.5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부여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도 장려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북형 주 4일 근무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이나 현안 업무를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가 솔선하여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중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회장 박철진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